

은행원의 Big5 성격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을 매개 변수로

김경선*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과정

박우진**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Big5 성격요인에 따른 창업의도를 밝히는데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이라는 매개 변수가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금융기관 중 제1 금융권에 재직중인 은행원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원의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 연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직장 내에서의 직무 만족이나 고용불안정에 따른 이직과 창업의도,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논문이 다수이다. IT와 핀테크의 발달로 인해 은행의 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질 것이다. 대상자의 확대로 청년과 상관없이 30대 이후의 모든 연령층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0~40대의 희망퇴직자는 상당수 이직이나 창업에 뜻을 두고 있다. 은행원의 성격 특성을 분리하고 창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을 분석하여 창업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원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창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서론

한때 안정적인 직장 중의 하나로 대표되던 금융기관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인력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IT의 발달은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영업점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결합은 카카오펙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등장시켰다. 금융기관 간의 업무장벽이 무너지면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업무가 교차되고, 다양한 영역이 결합된 복잡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였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지식이 요구되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졌다. 이러한 핀테크의 발달과 금융업무의 복잡·다양화는 특히 은행 조직의 혁신의 필요성 제공하였고,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각

금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2015, 이재명, 강신기)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희망퇴직자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뿐만 아니라 30-40대의 조기퇴직자가 증가하였다.

선행 논문에서는 은퇴를 앞둔 직원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나 고용불안정, 직무 만족 등에 따른 이직의도 및 창업 의도에 대하여 주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Big5 성격요인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을 매개 변수로 활용한 경우 창업의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금융기관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있는데 이 중 은행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할 예정이다. 같은 금융기관이라 하지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는 조직의 특성이나 업무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 금융권 은행원이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행 내에서의 은퇴

* inbyong@naver.com

** hawkmaint@yonsei.ac.kr

및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은행원의 성격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Big5 성격

성격이란 주어진 환경이나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개인의 독특한 특징으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2018, 신하성, 2014, 최지환 & 김중인). 선천적으로 주어진 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주변의 환경, 문화적 영향 등을 받으면서 개인의 독특한 성향으로 체화되고 이 기질이 일관성 있게 표출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017, 김지홍).

Big5 성격 유형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외향성은 활동적이며 타인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성향이며, 친화성은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2017, 백유성). 성실성은 원칙을 지키고 목표달성의 의지가 강하며, 신경증은 정서적 불안정의 특성을 보이고, 개방성은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유형을 의미한다.(2018, 김지홍). 본 연구에서는 은행원의 성격 특성을 Big5 성격요인으로 분리하고 성격요인에 따라 창업의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3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

IT의 발달과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는 스마트 사회로의 진입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범위는 직장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생활에까지 확대되었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등장하기까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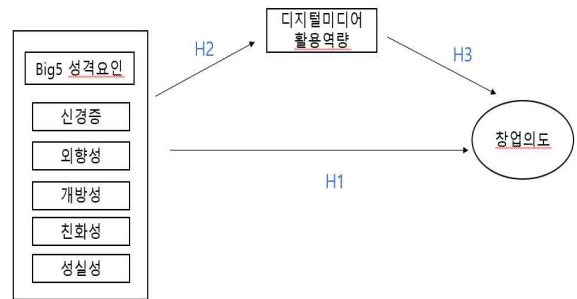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등장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컴퓨터 사용 역량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올바르게 분석 및 평가, 자신의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재생산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으로 향상시켰다.(2014, 권성호, 현승혜).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은 창업의 성장 요인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도 창업 아이템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의 구성요인이 기기 활용역량, 콘텐츠 활용역량,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2017, 이상길)으로 구분하여 은행원의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2.4. 창업의도

창업의도란 창업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창업이라는 계획된 행동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2015, 이재명, 강신기). 개인의 태도와 경험은 창업이라는 계획된 행위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창업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2004, 윤방섭). 이러한 창업의도의 이론적 바탕으로 은행원의 Big5 성격요인과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이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위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Big5 성격요인과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Big5 성격요인이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이 Big5 성격요인과 창업의도에 어떻게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가설설정

Big5 성격요인,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 창업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Big5 성격요인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성격요인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신경증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 외향성으로 파악

되었다.(2018, 신하성). 참고 문헌에 근거하여 은행원의 Big5 성격요인은 창업의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2. Big5 성격요인은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Big5 성격유형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접근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2017, 문영환, 홍아름&황준석). 선행 논문을 바탕으로 은행원의 성격특성은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3.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 논문에서(2017,이상길)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의 구성요인을 기기 활용역량, 콘텐츠 활용역량,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으로 설정하여 연구한 결과 콘텐츠 활용역량과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논문에 근거하여 은행원의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4.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은 Big5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은행원의 성격 특성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은 의미 있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과

은행원을 비롯한 금융기관 종사자의에 관한 선행논문은 많지 않다. 연구 주제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직무 만족, 직무 스트레스, 고용불안정에 따른 이직 의도 및 창업의도에 관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은행원의 창업의도를 개인의 특성과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 논문에서 성격 요인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 대상을 은행원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업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이 은행원의 Big5 성격요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미디어 활

용역량이 성격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매개 효과가 있음을 예측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은행 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관련 컨설팅이나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은행원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권성호·현승혜(2014). 중·장년층 직장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학습과학연구*, 8(1), 120-140.
- 김지홍(2018). *기업조직 구성원의 Big Five 성격유형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문영환·홍아름·황준석(2017). 이용자의 성격특성과 접근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의 미디어*, 18(2), 33-64.
- 백유성(2017). 직무 의미감, Big 5 성격유형, 직무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6(5), 85-98.
- 박수현·최성수·권용주(2014). 특급호텔 구성원의 성격유형(Big5) 이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8(1), 171-186.
- 신하성(2018). IT 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격 5 요인이 개인혁신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전산회계연구*, 16(1), 111-133.
- 이상길(2018).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벤처대학원.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 이재명·강신기(2015). 금융기관 종사자의 이직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151-163.
- 최지환·김종인(2014). 은행영업점 고객접점직원의 Big 5 성격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 성별 및 직급의 조절효과. *마케팅논집*, 22(4), 199-221.